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66)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6 (2)96사단 주둔지-(5)오등봉 일대  
대형갱도 오름지하를 관통하다

입력 : 2007. 05.17. 00:00:00



▲오등봉 오름지하를 관통한 170m길이의 대형 갱도입구.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상륙 예상지점으로는 세 곳이 꼽혔다. 가장 유력한 상륙지점으로 예상됐던 모슬포 해안가를 비롯 제주시 해안과 한림지역 해안가가 바로 그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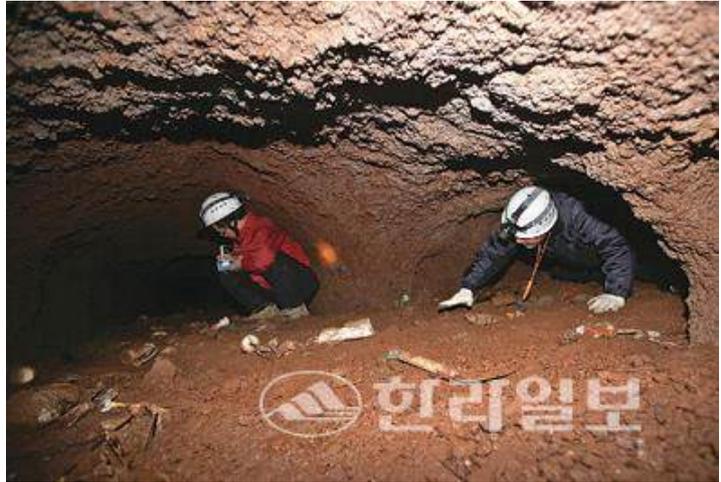
이 가운데 96사단이 중점 배치됐던 제주시 지역은 일본 육군의 동비행장(진드르비행장)과 서비행장(정뜨르비행장·현재 제주국제공항)이 자리한 전략적 요충지다. 거기에서 제주의 관문인 산지향이 자리하고 있다.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제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오름은 하나같이 일본군이 만든 대규모 갱도진지로 요새화 됐다.

제주시 동쪽 해안부에 위치한 원당봉·별도봉·사라봉에서 서쪽 해안의 도두봉 및 오라동 일대의 민오름·오등봉·남조봉·광이오름·상여오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갱도가 숨겨져 있다. 그 실상은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라봉·별도봉만이 일부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제주시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 96사단은 보병중심의 3개 연대 9천명의 병력에 예하부대 2천명 규모로 알려진다. 이들 병력은 제주시 산천단과 오등동, 명도암 일대를 주요 거점으로 분산 배치된다.

취재팀이 인터뷰한 양진현씨(제주시 오라2동 노인회장)에 따르면 민오름 부근에는 '겐부다이'(玄부대·96사단을 지칭) 소속 '와다다이'(和田隊)부대와 모리대부대 등이 주둔했고, 기마·야포부대 등이 있었다고 당시를 증언했다.

현장증언과 조사를 토대로 볼 때 오라동·연동 일대에 주둔했던 부대는 96사단 예하의 294연대로 추정된다.



▲토사가 밀려들어 낮아진 갯도내부를 취재팀이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군 주둔흔적은 오등봉(오드싱오름)에서도 확인된다.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梧登峰·표고 206m)은 동쪽 능선과 서쪽 능선이 길게 뻗어내린 가운데 그 사이는 굽부리가 형성돼 있다. 대규모 갯도로 요새화된 민오름이 지적이다.

오등봉에서 일본군이 구축한 갯도는 동쪽 능선에서 찾을 수 있다. 갯도는 남남서 방향에서 동쪽으로 오름능선을 관통한 형태다. 그 길이는 1백70m에 이를 정도로 대형이다.

갯도 진입부는 30도 정도의 경사를 이룬 채 하향 전개된다. 벽면에는 갯목흙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갯도는 밖에서 밀려든 토사로 천장과 바닥사이 폭이 낮아진 상태다. 낮은 포복으로 진입해야 할 정도다. 좁은 곳은 50cm 정도에 불과한 지점이 30~40m 정도 이어진다.



오등봉의 또다른 갯도는 서쪽 능선의 분화가 안쪽에서 찾아냈다.

▲토사와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점차 훼손되고 있는 갯도 입구.

갯도는 30m정도의 진입부를 따라 가면 오른쪽으로 길게 뚫렸다. 갯도 내부 25m지점까지는 낮은 포복으로 갈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바깥에서 밀려든 토사로 천장과 바닥사이가 낮아져 진입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하지만 갯도는 길게 이어져 있어 상당한 규모로 구축됐음을 알 수 있다.

갯도 벽면에는 갯목 흙(직경 30~40cm, 흙 사이 50cm)이 뚜렷이 나있다. 또 진입부에는 계단이 뚜렷이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과 북쪽으로 45m 떨어진 지점에는 또다른 갯도입구가 확인된다. 이 갯도는 18m 지점까지

는 일직선으로 파 있으나 역시 흘러내린 토사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두 곳의 갱도는 서로 연결돼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 토사가 밀려들지 않았다면 내부는 디  
근자형의 갱도로 구축됐을 것으로 보인다.

능선의 바깥쪽 사면에서도 10m 정도 길이의 무너진 갱도 흔적이 확인된다.

오등봉의 갱도는 이 일대에 주둔했던 96사단 예하의 294연대와 관련돼 있다. 294연대는 보병  
부대 뿐만 아니라 포부대·기마부대 등이 주둔해서 대규모 갱도를 구축하고 '주저항진지'를 형성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등봉에 구축된 갱도는 토사가 유입되고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 이상 훼손  
되기 전에 하루빨리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 [미니해설/일본군 진지유형 분류]다양한 진지구축 본토결전대비

일본군은 제주도를 일본토 사수를 위한 결전의 장으로 삼기 위해 4종류의 진지를 구축한다. 위  
장진지, 전진거점진지, 주저항진지, 복곽진지가 바로 그것이다.

▶위장진지(偽裝陣地)=포 폭격을 흡수하는 등 적의 진행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진지다.

▶전진거점진지(前進據點進地)= 주로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위치해서 한 부대를 파견하여 거점  
이 적에게 뺏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적의 전개방향을 틀리게 하여 주저항진지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말 그대로 주력을 다하여 방어해야 하는 진지를 말한다. 주저항진지  
에는 보병의 항전지대와 그 후방의 주력포병 및 관련 설비 등이 배치된다.

▶복곽진지(複郭陣地)=주로 내륙 깊숙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치됐다. 주저항진지가 함락됐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마련됐다. 복곽진지와 내륙부의 진지를 연결하는 군사도로가 바로 '  
하치마키'도로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